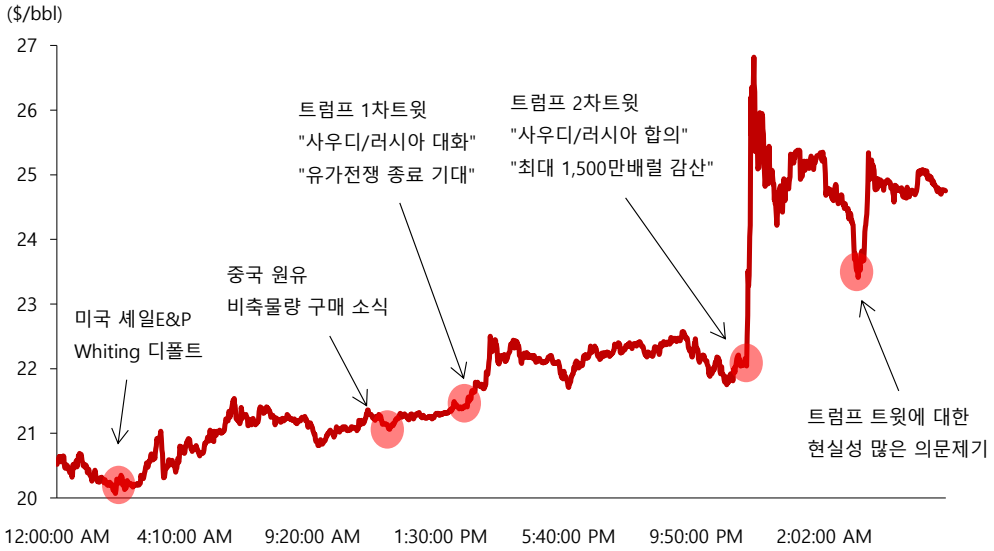
energy snapshot

Analyst. 손 지 우 / 3773-8827, jwshon@sk.com

참이든 거짓이든, 유가를 움직인 트럼프 트윗

▶ 4/2 자정 이후 미국 셰일E&P Whiting 부도, 중국 원유 구매소식으로 원유 상승 분위기다가, 트럼프의 두 차례 트윗으로 폭등. 유가 상승 위한 트윗 타이밍 기가 막혔지만, 현실성 의문인 만큼 우상향 여부 지켜볼 여지 있음

4/2 자정 이후 WTI의 분봉 상 이벤트 분석



자료 : Bloomberg, SK증권

- 간밤에 유가가 +24% 급등해 $25까지 왔습니다. 장중 +30% 급등도 있었는데, 일단 뉴스플로우가 많았으니 정리부터 해볼까요?

- ① 4/2 새벽. 미국 셰일 E&P Whiting이 디폴트를 선언했습니다. 일각에선 산유량 감소를 기대했지만, 이들은 "현금보유량으로 사업유지"를 발표해 기대와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. ② 4/2 오후. 중국의 비축유 구매 소식이 있었습니다. 민영까지 써서 비축유를 90일 → 180일까지 늘린다는 소식이 나왔죠. 다만 중국의 이런 소식은 3월부터 종종 나왔기에 그다지 큰 영향을 미치진 못했습니다

- ③ 4/2 오후. 트럼프 1차 트윗입니다. 이 때부터 유가가 들썩이죠. "사우디/러시아 수뇌부와 이야기 나눴고 며칠 내 유가전쟁 종료 기대"라는 발언을 했죠. "미국 석유업체들과 3, 4, 5일 대화" 한다고도 했습니다. ④ 4/3 트럼프 2차 트윗입니다. 폭등 기폭제였죠. "사우디-러시아 1,000만 배럴 감산을 할 것."이라며 대화를 마쳤다고 했고, 이후 최대 1,500만 배럴까지도 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

- 일단 시장은 연초 후 $60 → $20 수직 낙하한 유가의 피로감에 젖어 있다, 시의적절한 트럼프 발언에 모멘텀을 받은 모양새입니다

- 단 여기저기 트럼프에 대한 회의론이 나옵니다. 일단 사우디/러시아가 합쳐 2,000만b/d 가량 생산 중인데, 1,000만~1,500만b/d 줄인다는 건 말도 안 된다는 겁니다. 동시에 둘 다 어떤 합의도 없었다 발표했구요. 무엇보다 2배 이상 증산으로 세계최대 1,300만b/d 도달한 '공급과잉 주범' 미국 자체가 감산 얘기는 일언반구면서 남들만 하라는 지시가 얼마나 설득력이 있을지도 의문입니다

- 일단 트럼프의 발언은 유가를 올리기에는 최적의 타이밍이었습니다. 하지만 실제 중요한 건 감산합의가 나오느냐인데, 아직 확신은 어렵죠. 게다가 이제 24% 급등이라해도 $60에서 $20까지 급락한 유가가 $25된 정도입니다. 방향성이 바뀌었다고 하긴 어렵습니다

• 작성자는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이 본인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,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신의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.
• 본 보고서에 언급된 종목의 경우 당사 조사분석담당자는 본인의 담당종목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
• 본 보고서는 기관투자가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.
• 종목별 투자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.
• 투자판단 3단계 (6개월 기준) 15%이상 → 매수 / -15%~15% → 중립 / -15%미만 → 매도

SK 증권